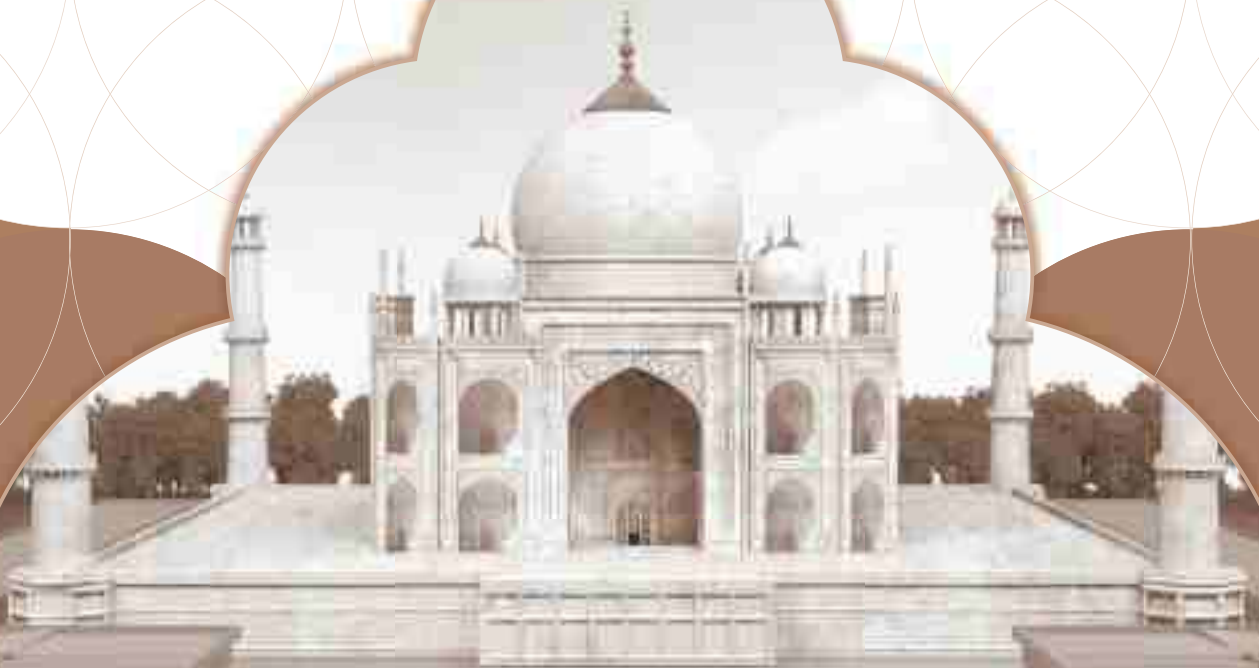


2022
문화도시조성사업

특강자료집

인도를 김해에서 만나다



2022
문화도시조성사업

한국과 인도의
관계를 돌아보며

인도를 만나다 김해에서

- 특강명** · (전문가 특강) 한국과 인도의 관계를 돌아보며, 김해에서 인도를 만나다
- 특강일시** · 2022년 9월 30일(금), 14:00 ~ 17:00
- 특강장소** · 김해창업카페 세미나 홀(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232 김해여객터미널 3층)
- 특강내용**
 - ‘간디(Gandhi)’, 세상을 바꾸다. - [특강1] 김찬완 한국외대 인도연구소 소장
 - 허황옥 루트를 재검토 하다. - [특강2] 이거룡 선문대 대학원 통합의학과 교수
 - 김해-인도 대표 인물 허왕후! 콘텐츠로 풀어내다. - [특강3] 김태영 경남연구원 미래전략본부장
- 중계주소** · 김해문화도시센터 유튜브 (<https://url.kr/6d2lk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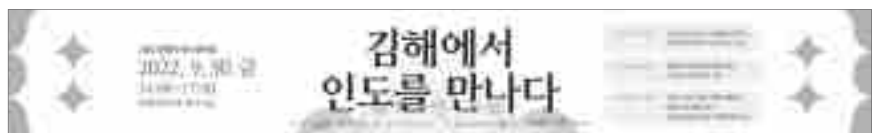
홍보자료



〈웹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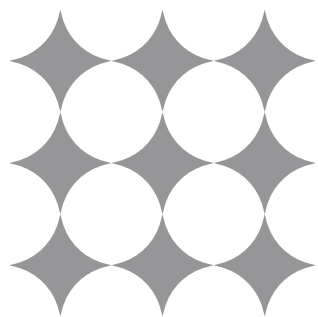


〈X배너〉



〈현수막〉

인도를 만나다
김해에서



‘간디(Gandhi)’, 세상을 바꾸다.

김찬완 한국외대 인도연구소 소장

간디(Gandhi), 세상을 바꾸다

2022. 9. 30.

인도연구소 간디대수강

김찬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인도연구소 소장

indokim@hanmail.net



출처: 위키미디어

차 례

1.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비폭력 불합종
2. 남아공에서의 연중자별 경험, 세상을 바꾸다
3. 간디의 평생 화두
4. 네투의 삶을 바꾸다
5. 배려하는 원주주의, 다가가는 원주주의로 세상을 바꾸다
6. 통합의 상징, 간디

1. 간디의 비폭력 불살생,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다

모한다스 까람찬드 간디 (Mohandas Karamchand Gandhi)

- 1869년 10월 2일 인도 구자라트 포르반다르 행정가 집안에서 출생
- 1남1녀의 막내 아들
- 1948년 1월 30일 뉴델리에서 힌두교신도에 의해 암살되어 79세 생을 마감
- 어린 시절부터 힌두교(비규노파)와 자이나교의 영향을 받은 부모님에게 불살생, 채식주의, 도덕적인 삶을 교육 받음
- 허탈 착수에 씌는 모습 없어 조용하고 소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음
- 중학교 때 잠시 방황하던 시절 육사, 담배, 절도 등을 하다 결국 자살 시도까지 했음
- 13세 때 카스트루버버 마란지 카파디아(1869~1944)와 결혼, 절없는 남편
- 1888년 8월 어머니에게 줄 여차, 음식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 변호사가 됨(1891 귀국, 22세)
- 영국유학시절 공부보다는 도덕적인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짐
- 헌법 채식주의의 집행위원이 되어 채식주의를 홍보하고 성경과 허가바다기타 예독
- 불스토이를 존경하며 육체노동을 신성시 함



2. 남아공에서의 인종차별 경험 간디의 인생과 세상을 바꾸다

- 1888년 남아공에 건너간 간디(4세). 인도인에 대한 극심한 인종차별 경험
- 1894년 남아공 다문화회의의 인도인의 선거권 박탈에 저항하면서 정치가로 변함
- 이를 계기로 나탈 인도국민회의를 창립하고 1894년~1913년 제1차 남아공의 인도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투쟁함
- 이 기간 간디는 인도인에 대한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사티아그라하 (Satyagraha, 끈기 투쟁) 운동을 펼침
- 세 폭의 부자형의 방법이 상대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라 믿고 실천함
- 결국, 1914년 8월 간디가 주도한 사티아그라하 운동은 남아공에서 비 인도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 시킴



3. 자치(스와라즈, Swaraj)와 자립(스와데쉬, Swadeshi) - 간디의 평생 화두

- 개인의 자유에서부터 인도의 자치를 이끌었음.
- 간디의 상징이 된 물러. 인도 자립의 상징이 됨.
- 1915년 인도로 귀국한 간디(45세). 아슈람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불가촉천민 등 하층민을 응징하게 대하는 파격인 행동으로 세상을 바꾸기 시작함
- 인도 전역을 여행하며 영국 식민지배하의 인도 참상 확인
- 제1차 사회이교리화: 1919년 9월 재판 없이도 인도인을 구금할 수 있다는 영국령 약법, 로울러트법(Rowlatt Act)에 대한 저항
- 제2차 사회이교리화: 1930 소금대항전
간디의 비폭력 무저항 운동 중 가장 성공적인 운동으로 평가받음.
- 1934년 INC 총회 마나 인도 공화 세바그람(Sevagram)이라는 곳에 살면서 농촌 등상의 마을민부 경제발전 활동
- 제3차 사회이교리화: 1942년 인도불수 운동(Quit India Movement)
- 이후 간디는 1947년 영국으로부터 인도를 독립시켜 새로운 세상을 인도인들에 의해 건설함



4. 네루의 삶을 바꾼 간디

- 네루와의 첫 만남은 1916년 라크나우 INC 총회에서 이루어짐
- 네루는 1919년 간디의 제1차 사회이교리화 운동 이후, 인도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
- 간디의 정치노선은 물론 생활양식까지 따라함
- 오랜 기간 서구 문화에 익숙했던 부유했던 네루 가족은 간디의 국산품 애용과 소박한 삶에 감명받음
- 이후 서양의 것을 버리고 인도 전통의 단순 소박한 생활문화를 받아들임
- 젊은 네루는 무르타 화자미를 즐겨 읽고 간디 모자를 애용함
- 간디의 영향으로 당해도 굶고 체복주의를 받아들임
- 간디 인생의 자칭서명 'भागवत गीता(Bhagavad Gita)'를 즐겨 읽으면서 정치에서 도덕을 중시함
- 네루는 자신의 아버지 모달함에 사망하자, 간디에게서 아버지의 모습을 찾기도 함
- 간디는 포털(R. V. Patel) 대신에 네루를 INC 대표와 인도 최대 총리로 지원



1946년 네루와 간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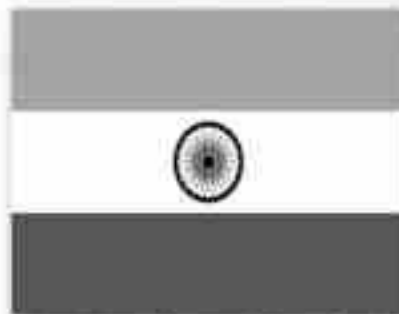
5. 배려하는 민주주의, 다가가는 민주주의로 세상을 바꾸다

- '여수항 공공역에서 불거졌던 불 하층민을 위한 배려 간디의 정신. 직업할당제(DC 10%, DC 7.0%)로 이어져
- 르망인종 학살 배려, 북공공차 내 각 계층의 신분표기
- 후배정치인에 대한 배려, 젊은 내무에게 인도를 맡기다
- 하층민을 해방하는 간디만 만나 히特勒의 인부들 운동, SAP 등으로 이어져



6. 간디, 사후에도 인도 통합에 힘쓰다, 통합의 상징 간디

- 많은 국가에서 역사적으로 위대한 분이나 영웅을 국민통합과 사회통합의 상징으로 여음
- 인도는 독립이전의 역사에서 모든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이나 영웅을 찾기 쉽지 않음.
- 종교나 지역에 따라 존경하는 영웅이 다름.
- 하지만 인도 독립을 이끌었던 마하트마 간디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존경하고 국부(國父)로 받아들이고 있음.
- 간디는 독립 이전부터 인도 국가의 사회통합의 상징 인물로 간주되어 있음. 종교 간의 단합, 특히 힌도와 무슬림의 단합을 강조한 인물임.
- 인도 국가도 간디의 제안에 의해 종교 간의 화합을 의미하는 지금의 색깔을 갖게 되었음 (카키색=힌두교, 녹색=무슬림, 흰색=기타 종교)
- 간디는 끝까지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리 독립을 반대한 인물임.



통합의 상징 간디, 인도 모든 화폐의 얼굴이 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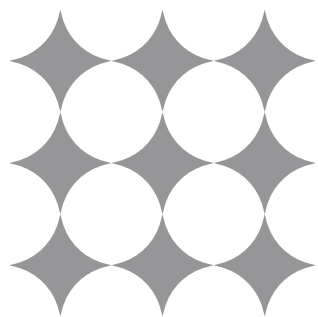
**Swachh Bharat (Clean India)
간디, 사후에도 인도를 정화하다.**





Thank You
धन्यवाद

인도를 만나다
김해에서



허황옥 루트를 재검토 하다.

이거룡 선문대 대학원 통합의학과 교수

허황옥루트 재검토

이거름/선문대 대학원 동남아시아학과

egul@sunmoon.ac.kr

- 목차 -

- 김병모교수의 "보주경유설" 검토
- 남릉정문(納陵正門) 신어상(神魚像)-사천성 보주 쌍어문-아요디아(Ayodhya) 쌍어문(雙魚紋)의 상호관련 검토
- 허황옥루트 재검토
- 고대 가락국(駕洛國)과 따밀(Tamil)왕국의 문화적 접촉 가능성-물고기 숭배를 중심으로



허황옥이 역사적 인물이라는 근거

- 1) <삼국유사> 가락국기조 및 금관성파사석탑조의 허황옥기사/ “저는 아유타국의 공주입니다. 성은 허(許)라 하고 이름은 황옥(黃玉)이며, 나이는 열여섯입니다.”



2) 사천성 보주 서운향 <신정기>의 명문/ 사천성
보주 서운향 <신정기>의 명문/

"동한(東漢, 서기 25-220) 초에 허황옥이라는
소녀(許女黃玉)가 있어 용모가 수려하고 지략
이 뛰어났다. 어릴 때부터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했다."



허황옥의 역사성 및 출자 규명

- 파사석탑에 관한 연구
- <삼국유사>의 허황옥과 <신정기> 허녀황옥의 관계 규명
- 보주에서 가야까지의 이동경로

<삼국유사>의 허황옥기사에 관한 국내의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이 기사를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입장이며, 다른 하나는 단지 신화적인 허구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아유타국은 고대 인도의 어떤 도시 또는 나라인가? 불행하게도 <삼국유사>에는 아유타국에 대한 설명이 없다.

뿐만 아니라 <삼국유사> 이외의 기록에는 아예 허황옥에 관한 기사가 전해지지 않는다. 금관성파사석탑조에서는 "[파사석탑은 허황후가] 서역(西域) 아유타국에서 싣고 온 것"이라 하여, 아유타국의 소재가 서역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서역이 곧 오늘날의 인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아유타국을 “서역”으로 특정한 것은 <삼국유사> 편찬자의 가필일 수도 있다. <경상도지리지>(1425)에 따르면, 허황옥의 출자는 “남천축”(南天竺)이다. <장유사중창기>(長遊寺重創紀, 1545)에는 “월지국(月支國) 신승(神僧) 장유(長遊)”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에 따른다면, 허황옥의 출자는 월지국이다.

한역 불전에서 아요디야가 아유타(阿踰陀)로 음역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 <가락국기>의 아유타국은 갠지스 강 지류인 사라유(Sarayu) 강의 아요디야(Ayodhya)라는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지만, 그렇다고 하여 <가락국기>의 아유타국이 곧 북인도의 아요디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최근에는 <가락국기>의 아유타가 남인도 첸나이(Chennai) 동쪽 바닷가의 마을인 아요디아꾸뻬(Ayodhya Kuppam)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김정남 2005).

그러나 <가락국기>의 아유타국을 첸나이 동쪽 바닷가 마을인 아요디아꾸뻬으로 단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가락국기”에서 허황옥은 자신의 출자를 “아유타국”이라고 말하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첸나이의 아요디아꾸뻬은 한 번도 나라(왕국)로 칭해질 만큼 큰 도시였던 적이 없기 때문이다. 적어도 “가락국기” 또는 <삼국유사>가 기록될 당시에는 아유타국이라고 하면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나라 또는 도시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김병모의 “허황옥루트”

- 1) 가락국 - 보주 사천성 보주
- 2) 사천성 보주 - 북인도 아요디아(Ayodhya)
- 3) 가락국 - 사천성 보주 - 아요디아의 연결고리는 “쌍어문”

신어상/쌍어문은 북인도 아요디아와 <삼국유사> 아유타국의 일치를 입증하는가?

지금까지 허황옥의 출자를 북인도의 아요디아로 본 것은, 단지 1) 아유타가 아요디아의 음역이라는 점, 그리고 2) 남릉정문의 쌍어문과 현재 아요디아에서 보는 쌍어문이 유사하다는 사실에 의거한 것이었다.

그러나 수로왕릉이나 아요디아의 쌍어문은 그 역사적인 배경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대 아유타국의 소재를 규명하는 작업에도 큰 의미가 없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가락국기>의 아유타국은 곧 북인도의 아요디아라는 주장이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었다.

이종기(1929-1995)의 <가락국 탐사>(1977)는 가야사(伽倻史) 연구의 선구적 현지답사기록이다. 이 책에서 그는 인도 아요디아(Ayodhya)의 쌍어문과 남릉정문의 신어상의 유사성을 제시했다. 이로써 남릉정문 신어상과 아요디아 쌍어문의 상호관련, 또는 <삼국유사>의 아유타국(阿踰陀國)과 인도 아요디아의 일치 문제가 학계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고고학자 김병모(金秉模)는 이종기의 견해를 수용하면서 허왕후릉비문에 나오는 “보주태후(普州太后)”라는 문구에 주목해 허왕후 일행이 쌓어문을 국가의 문장으로 삼았던 인도의 아요디아에서 난을 피해 중국의 보주(普州), 즉 지금의 사천성(四川省) 안악(安岳)일대에 머무르다가 가락국으로 이주해 왔다는 가설을 제시했다.

신어상/쌓어문은 고대 가락국을 대표하는 중요한 상징이었는가?

“1세기 때 한반도에 있던 다른 고대국가에는 국가의 상징이 없다. 유독 가락국의 쌓어문만 이 국가가 없는 시대에 국가 상징이었다. 쌓어문이 수로왕릉뿐만 아니라 가락국의 영역이었던 김해 은하사, 경상남도 일대의 계원암, 영암사지 등에 남아 있고 현대에도 김해지방의 민가에서 민속신앙의 대상으로 경배되기 때문이다”(김병모 2011, 34).

만일 쌍어문이 가락국을 대표하는 중요한 상징이었다면 후대의 기록에 전해질 법도 한데, 수로왕릉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에는 쌍어문에 대한 언급이 없다. <정조실록>에는 수로왕릉에 놓인 석물과 비석 및 비문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가락왕릉을 보고하고 있지만, 쌍어문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로 미루어볼 때, 적어도 정조 때까지만 해도 가락왕릉이나 허왕후를 모신 사당에 쌍어문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김태식에 의하면, "정조16년(1792년)까지는 남릉정문과 현재 상태의 제각건물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999, 74). <숭선전지(崇善展誌)>(1903)에 따르면, 안향각은 순조 24년(1824)에 신축된 것이며, 남릉정문은 정조 17년(1793)에 외삼문(外三門)으로 설치되었다가 현종8년(1843)에 지금의 위치로 옮겨진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오늘날 수로왕릉의 쌍어문은 정조16년(1792) 이후 또는 순조24년 이후에 그려진 것이라고 해야 한다.

만일 쌍어문이 가락국의 상징이 아니었으며, 가락왕릉에도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조 16년 이후에 그려졌다면, 과연 어떤 연유로 쌍어문이 수로왕릉 정문과 안향각에 그려지게 되었는가?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뚜렷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김병모는 수로왕릉과 안향각이 수리되는 과정에서 그 원형은 그대로 보존되었을 것으로 본다(김병모 1988, 6-7; 2011, 34).

그러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다. 수로왕릉의 쌍어문을 조선 후기 건축기술에 능한 승려들에 의해 새겨진 것으로 보거나,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불교건축문화의 한 유형으로 이해하는 입장(이창식 2012, 18)이 있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납릉정문 신어상은 북인도 아요디아 쌍어문에서 유래했는가?

현재의 수로왕릉 안내문에는 납릉정문 부조의 신어상을 아요디아의 쌍어문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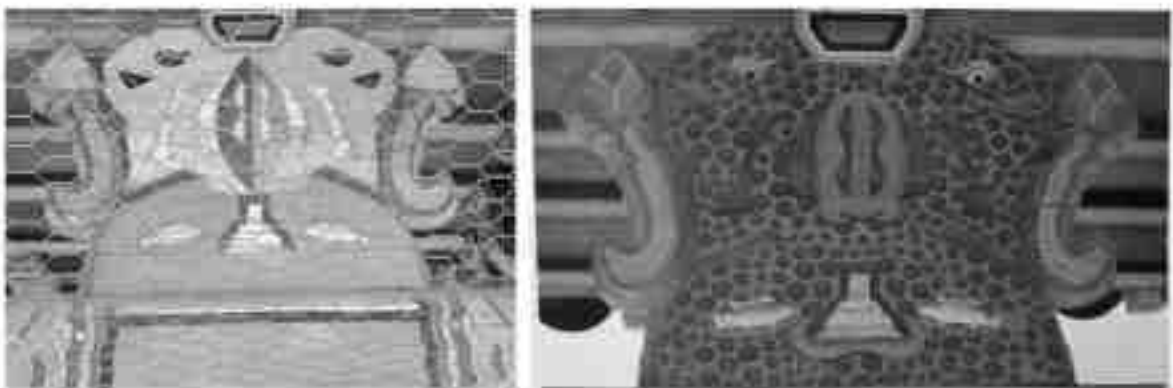
“납릉(納陵) 정문에는 파사석탑과 유사한 흰 석탑을 사이에 두고 인도에서 흔히 보이는 쌍어문 양이 새겨져 있어 수로왕비 허황옥이 아유타국에서 왔다는 삼국유사의 기록을 연상케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할 것은 남릉정문 부조의 세부 내용과 색채가 여러 차례 바뀌었으며, 현재의 안내문은 단지 현재 남릉정문 부조에 대한 설명이라는 사실이다. 특히 1980년대 부조(<그림1-2>)와 1990년대 이후 부조(<그림1-1>, 이하 이후 부조로 약칭함)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둘을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는 부조의 윗부분, 즉 대개 코끼리 머리 형상으로 말해지는 부분이다.

현재 남릉정문 부조



<광장> 제174호(1988.02)



현재 납등점문 부조 와 <광장> 제174호(1988.02)



<광장> (상) / <가야불교의 고찰> (하)

이 둘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두 마리 물고기 사이에 있는 탑에 대한 묘사이다. 이 둘에서 탑은 전체적인 외양뿐만 아니라 그 세부적인 내용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첫째, <한국인의 발자취> 와 <광장>의 탑에서 가장 아랫부분은 탑의 기단 부처럼 묘사되어 있지만, <가야불교의 고찰>에서는 이 부분이 거의 무시되었다.

둘째, 전자에서는 기단부 위의 두 개 층에 각각 4개와 3개의 사각형을 배치한 반면에 후자에서는 각각 3개와 2개를 배치하였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가야불교의 고찰>의 부조를 근거로 기독교의 오병이어(五瓶二魚) 기적을 묘사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사도(使徒) 도마(Thomas)의 가야 선교를 믿는 우리나라 기독교계 일부에서는 이전 부조를 근거로 남릉정문 부조를 <신약성서>의 '오병이어' 기적을 묘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락국 담사> (이종기, 1977)

지금까지 논의를 요약하면

첫째, 납릉정문 신어상은 가락국 초기부터 나라의 상징이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둘째, 납릉정문 신어상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차례 그 내용과 색상이 바뀌었으며, 원형을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아요디아 쌍어문의 유래

아요디아 라자

<가락국기>의 아유타국이 아요디아라는 주장이 무비판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현재 인도에 전해지는 아요디아왕국의 전통이 재조명되었다. 지금도 인도의 아요디아에는 '왕(Raja saheb)'이라 불리는 미슈라(Bimlendra Mohan Prasad Mishra)라는 사람이 살고 있으며, 그의 집에는 쌍어문 기장이 있다.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에서 그는 가야왕족의 후손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미슈라 본인은 허황옥전승을 믿기 어려워했다. 왜냐하면 미슈라의 조상은 겨우 10대까지 추적 가능하기 때문이며, 심지어 미슈라의 조상은 아요디아 출신도 아니다.

미슈라는 자신이 비하르(Bihar)지역 보즈뿌르(Bhojpur)의 영주(領主)였던 사다난드 빠타끄(Sadanand Pathak)의 후손이라고 알고 있다. 사다난드 빠타끄의 아들 고पाल 람(Gopal Ram)은 17세기 후반에 아요디아로 이주했다. 다시 말하여 미슈라의 조상들이 아요디아의 왕족으로 자리 잡은 것은 17세기 후반의 일이라는 것이다.

기원과 유래가 불명확한 납릉정문 신어상에 비하여, 아요디아 쌍어문의 기원과 유래는 비교적 분명하다. 힌두교의 최대 성지 중 하나로 꼽히는 아요디아에는 7천여 개의 힌두교사원이 있으며, 비슈누(Viṣṇu)의 화신(化身, avatāra), 특히 라마(Rama)와 관련된 사원들이 주를 이룬다. 이 중에서 쌍어문이 있는 주요 사원들과 아요디아 왕궁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가 아요디아에서 보는 쌍어문의 역사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아요디아의 주요 사원들은 람꼬트(Ramkot), 즉 라마의 탄생지(Ram Janm Bhumi)로 전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모여 있으며, 쌍어문은 사원이거나 건축물로 들어가는 대문에 조성되어 있다.



아요디아의 중심부에 있는 하누만 가르히 사원(Hanuman Garhi Mandir)으로 들어가는 골목 입구 아치형 대문(Simha Dwara, 사자문) 윗부분에 시멘트로 조성하고 채색한 쌍어문이다. 현재의 건물은 1950년경 유명한 지역 성자 님 까롤리 바바(Neem Karoli Baba)에 의하여 세워진 것으로 전해진다. 하누만 가르히 사원의 역사로 보나 아치형 대문의 외양으로 볼 때, 사자문 쌍어문의 역사는 길어야 100년이다.



차크라바르티 마하라즈 다사라트 마할(Chakravarti Mahraj Dashrath Mahal)의 정문 윗부분에 조성된 쌍어문이다. 현재의 건축물은 20세기의 산트 바바 람프라사드 지(Sant Baba Ramprasad Ji)에 의하여 재건축된 것이며, 외양이나 양식으로 볼 때에도 그 역사는 길어야 100년이다.



〈그림6〉은 슈리 까나까 브하반 사원(Sri Kanaka Bhavan Mandir) 정문 좌우에 조성된 쌍어문이다. 현재의 건축물은 1891년 떼까마흐가르흐(Tekamahgarh)의 왕비에 의하여 조성된 것이다(Singh, 2018: 16).



라트나 심하산 사원(Ratna Sinhasan Mandir)의 정문 윗부분에도 한 조의 쌍어문이 조성되어 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사원은 라마의 대관식(pattabhiṣekam)을 기념하여 조성된 것이다. 사용된 건축자재나 외양으로 볼 때, 이 건축물과 쌍어문은 최근에 조성된 것이 분명하다.



아요디아 왕의 궁전 정문(Clock Tower) 후면에도 쌍어문 한 조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힌두교 사원들의 경우와는 달리 정문의 전면이 아니라 후면에 쌍어문을 배치하였으며, 물고기의 모양도 전자에 비하여 다소 사실적인 특징을 보인다. 정문 전면 위에는 이 건축물이 1900년에 조성된 시계탑이라는 기록이 있으며, 이것은 쌍어문이 있는 정문의 역사가 백여 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아요디아 인근의 파이자바드(Faizabad)에도 다수의 쌍어문이 있으며, 대체로 후자는 전자보다 이른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아요디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파이자바드의 쌍어문도 시내의 성문이나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건축물의 아치형 대문 윗부분에 조성되어 있다.

파이자바드에서 쌍어문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건축물은 무갈(Mughal)제국 아와드흐(Awadh, 또는 Oudh)왕조의 나왐 수자 우드 다울라(Nawab Shuja-ud-Daula, 1732-1775)의 무덤과 그의 아내 바후 베굼(Bahu Begum)왕비의 무덤이 있는 두 건축물이다.



바후 베굼왕비의 무덤이 있는 건축물 옆구 정문의 전면과 후면에는 다수의 쌍어문이 조성되어 있다. 무덤이 있는 건물 안의 천장 부근에도 회반죽으로 만들고 아름다운 문양으로 장식한 다수의 쌍어문이 있다. 오늘날에도 이 건축물은 파이자바드의 대표적인 명소 중 하나이며, 1816년에 건축된 것으로 전해진다.



나왁 수자 무드 다울라의 무덤으로 통하는 내외 두 개의 3층 아치문에는 베금왕비의 무덤 건물에서 보는 것과 유사한 양식의 쌍어문이 4조(외문 전면 3조, 내문 전면 중앙에 1조)가 있다. 이 건축물은 나왁 자신이 조성한 것으로 전해지며, 같은 경내에 모스크가 있다. 이 두 건축물 외에도 파이자바드 도심의 오래된 아치형 성문에는 거의 패허에 가까운 쌍어문들이 다수 보인다.

아요디아와 파이자바드는 사실상 하나의 도시라 해도 무방하다. 또한 이 두 곳에서 보는 쌍어문은 도안이 거의 동일하며, 대개 아치형 대문의 윗부분에 조성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럼에도 이 둘 사이에는 다음 몇 가지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첫째, 건축물의 조성시기로 볼 때, 파이자바드의 쌍어문은 아요디아의 쌍어문보다 적어도 1-2세기 앞선다. 전자의 조성시기는 18-19세기인데 비하여 후자는 19-20세기 무렵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아요디아의 쌍어문은 대부분 힌두교 사원의 정문에 조성되어 있는 반면에 파이자바드의 쌍어문은 이슬람교의 모스크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나왈 수자 우드 다올라의 무덤이 있는 건축물은 모스크와 같은 경내에 조성되어 있으며, 쌍어문이 있는 파이자바드 도심 성문들 또한 인접한 초크(Chowk)모스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쌍어문이 있는 파이자바드 도심 성문들 또한 인접한 초크(Chowk)모스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파이자바드에는 정문에 쌍어문이 있는 모스크(Dargah Hajrat Abbas)도 있다.

그러면 파이자바드 쌍어문은 어디에서 유래했는가? 그것은 파이자바드를 수도로 삼았던 아와드흐의 문장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아와드흐의 문장(<그림13>)에서 핵심은 마주보는 두 마리 물고기 사이에 놓인 단검(katar)이다. 즉 쌍어는 아와드흐를 상징하는 문장의 일부였다.



아와드흐의 문장에는 중심에 단검이 있고 그 보호자로서 쌍어 외에도 그 좌우에 깃발을 든 두 마리 호랑이, 쌍어 위 중앙에 태양처럼 빛나는 왕관과 두 천사가 들고 있는 세 겹 목걸이, 왕관 위에 왕권을 상징하는 일산, 그리고 쌍어 아래의 화환으로 휘둘러 장식된 닻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아와드흐의 문장에는 오늘날 피자바드에서 보는 쌍어문과 비슷한 도안의 쌍어문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와드흐 문장이 오늘날 피자바드와 마찬가지로 건축물의 정문 또는 성문의 윗부분에 조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도상도 있다. 피자바드가 아와드흐의 수도였고, 또한 피자바드 쌍어문이 그 외양뿐만 아니라 설치 장소도 아와드흐 문장의 경우와 동일하다는 사실은 피자바드 쌍어문과 아와드흐 문장의 상호관련을 방증한다.



제7대 나왓 Ghazi ud-Din Haidar, 1814-27)의 궁전 건물 입구 문 위에 표현된 아와드흐문장이다.

아요디아-파이자바드 쌍어문의 유래

- 1) 아와드흐왕조 또는 그 이후에 조성
- 2) 아와드흐 문장의 간략형태- 본래 왕가의 상징인 문장이 왕궁 이외의 건축물에 표현되면서 오는 한계
- 3) 왕관/일산이 꽃으로 대체/ 쌍어가 강조됨

아와드흐 문장의 일부가 된 싼어의 유래는 분명하지 않다. 아와드흐왕조가 수립되기 이전 파이자바드지역에 싼어문이 있었다는 문헌기록이나 고고학적 유물은 발견되지 않는다. 아와드흐의 역사적인 배경, 그 문장의 전체적인 도안이나 주요 구성 요소들로 보면, 아와드흐 문장은 무갈 왕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갈왕조의 문장에서 핵심부분이라 할 수 있는 왕관이 아와드흐 문장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일설에 따르면, 렉나우-파이자바드의 물고기 상징은 페르시아에 기원을 둔 무갈왕조의 물고기 휘장인 마히 마라팁(Mahi Maratib)에서 유래한 것이며, 마히 마라팁은 1819년 나왓 그하지웃딘 하이데르 사흐(Nawab Ghaziuddin Haider Shah)가 아와드흐의 첫 왕으로 즉위할 때 왕궁 예술가 로버트 훔에 의하여 문장의 일부로 포함되었다.

마히 마라팁의 사나운 이빨과 눈 및 비늘은 아와드흐 문장의 물고기(rohu fish)에서도 그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마히 마라팁은 오직 싱글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아와드흐 문장의 쌍어와 다르다. 즉 아와드흐 문장의 물고기는 그 외양에서 무갈왕조의 마히 마라팁과 유사하지만, 전체적인 도안과 그것이 놓인 콘텍스트가 다르다는 것이다. 짐작 건대 마히 마라팁은 무갈왕조의 지방 정부에서 쌍어로 변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변용은 18세기 보팔지역 미라지 켈(Mirazi Khel)왕조의 문장에서도 나타난다.

다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무갈제국에서 임명된 나왓들이 통치했던 이 왕조의 문장에는 아와드흐 문장에서와 동일한 디자인의 쌍어가 있으며, 또한 무갈왕조나 아와드흐의 문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마리 물고기 위의 중앙에 왕관을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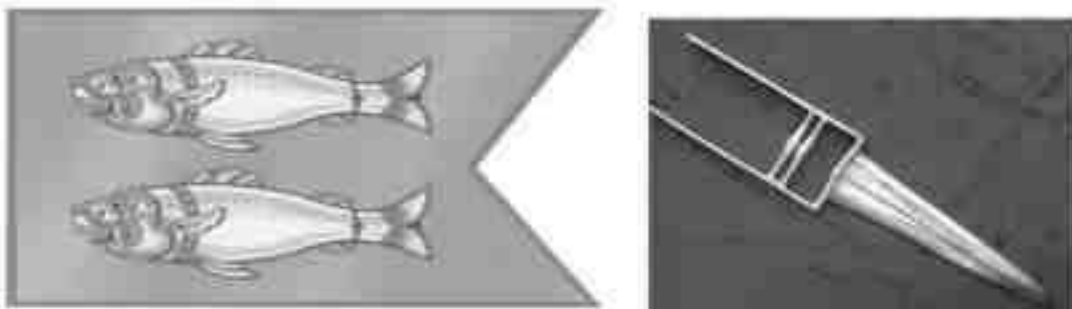


무갈왕조의 마히 마라팁이 그 지방 정부의 통치자들에 의하여 두 마리 물고기가 서로 마주보는 쌍어 형태로 변용되면서, 그 의미도 크게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무갈왕조에서 마히 마라팁은 힘과 존엄과 권위의 상징이었지만, 아와드흐나 미라지 켈의 경우에 쌍어는 오히려 어떤 대상에 대한 '보호'(protect)와 '지지'(support)의 의미를 띠게 되었다. 아와드흐와 미라지 켈의 문장에서 쌍어 위 중앙에 왕관을 배치한 것은, 쌍어가 왕관을 보호하고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왕관은 무갈왕조의 상징이다.

한편 무갈왕조에서 처음으로 마히 마라팁전통을 시작한 샤 자한(Shah Jahan, 1522-1666)왕의 왕궁역사가 압둘 아미드 라호리(Abdul Amid Rahori)에 따르면, 마히 마라팁은 델리의 술탄(Sultan)왕들에 의하여 하사된 적이 있으며, 이러한 전통은 남인도의 데칸(Deccan)지역 통치자들에 의하여 그들에게 전해졌다.

남인도에서 물고기는 오래 전부터 비슈누의 화신 맛시야(matsya)와 관련하여 왕권을 상징하였다. 물고기는 고대 따밀(Tamil) 뻬디야(Pandya)왕국의 문장이었으며(<그림18>)(이거룡, 2017: 105), 비자야나가라(Vijayanagara)왕국(1336-1646)의 건물들에서도 발견된다.

옛 따밀왕국 건축물들에 표현된 맛시아의 외양은 확실히 마히 마라팁과 유사하며, 항상 싱글로 표현된다는 점에서도 맛시아와 마히 마라팁은 같다. 뽀디아왕국 깃발의 물고기는 마히 마라팁을 연상하게 한다. 또한 에서 보는 것처럼, 아와드흐왕조의 인장과 은화에 묘사된 반인반어 형태의 쌍어(Jal Pari)는 남인도에서 흔히 보는 맛시아와 거의 동일하다. 뿐만 아니라 아와드흐문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쌍어 사이의 단검이 타밀왕국 고유의 까따르(katar)라는 사실은 아와드흐 문장과 따밀왕국의 상호관련을 강하게 시사한다.



뽀디아왕국 문장(좌), 남인도 고유의 단검(우)



반인반어 형태의 쌍어(좌)/ 맞시아(우)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드러난 것처럼, 고대 인도와 한국의 문화적인 접촉가능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중심에 쌍어문을 두는 것은 거의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수로왕릉의 쌍어문과 고대 가락국의 관계뿐만 아니라, 현재 아요디아의 쌍어문과 고대 아요디아 또는 사계따의 관계가 입증되지 않기 때문이다. 수로왕릉의 신어상과 가락국의 관계가 역사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아요디아지역에서 볼 수 있는 쌍어문과 고대 아요디아왕국의 관계 또한 입증되지 않는다. 고대 아요디아왕국에서 쌍어문을 나라의 중요한 상징으로 사용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아요디아와 파이자바드에서 보는 쌍어문은 18세기 무갈제국의 지방왕조인 아와드흐의 문장에서 유래하는 것이며, 그 역사는 길어야 3백 년이다. 따라서 아요디아의 쌍어문이 허황옥과 함께 가락국에 왔으며, 또한 납릉정문 쌍어문의 기원이라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아요디아에서 쌍어문이 시문되기 시작한 것은 허황옥의 가락국 도래 시기(A.D.48년)보다 적어도 1,600여 년 이후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아요디아의 쌍어문이 파이자바드 쌍어문에서 유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9세기 이슬람 침입 이전의 아요디아에 쌍어문이 있었을 가능성도 희박하게 만든다.

그러면 아요디아의 쌍어문과 납릉정문의 신어상 사이에 어떤 양식적인 유사성이라도 있는가? 어문(魚紋)은 크게 단어문(單魚紋)과 쌍어문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단어문은 대개 숭배의 대상인 경우가 많다. 힌두교의 어신(魚神) 맞시야(Matsya)는 그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쌍어문은 그 모티브에 따라서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첫째는 풍요와 번성 의미의 쌍어문으로, 두 마리 물고기의 자웅(음양)관계가 역동적으로 표현된다. 이 경우 쌍어문의 배치는 두미상반(頭尾相反)하여 굴신(屈身)한 쌍어가 선회하는 형식이 일반적이며, 중국의 쌍어문은 대부분 이 범주에 속한다. 중국의 쌍어문이 대개 물고기 두 마리의 자웅관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은 그 배경에 음양사상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보호'를 모티브로 하는 쌍어문이며, 두 마리 물고기가 그 대칭의 중앙에 어떤 대상을 향하여 마주 바라보는 형식을 취한다. 대개 두 마리 물고기는 45도 또는 '팔'(八)자 형태로 비스듬히 마주보는 형태가 일반적이지만, 예외적으로 수직 또는 수평으로 마주보는 경우도 있다. 셋째는 걸림 없는 자유 또는 열반을 상징하는 쌍어문이며, 불교의 팔길상(八吉祥) 중에 나오는 쌍어문이 대표적이다.

납릉정문의 신어상은 위에서 말한 세 가지 범주 중에서 두 번째 즉 보호 또는 숭배를 모티브로 하는 쌍어문으로 이해된다. 두 마리 물고기가 마주 바라보는 대칭의 중앙 부분에 스투파(stūpa)를 배치함으로써, 두 마리 물고기가 스투파를 보호하는 형태의 도안이다. 수평으로 마주 보게 배치된 두 마리 물고기에는 전혀 운동감이 보이지 않으며, 잔잔한 강 또는 바다 속에 가만히 떠있는 것 같은 모습이다.

두 마리 물고기가 배와 배를 합하여 나란히 배열한 이른바 바빌로니아 양식의 쌍어문이 아니라는 점에서 납릉정문의 신어상과 아요디아의 쌍어문은 공통된다. 또한 아요디아의 쌍어는 대개 45도 각도로 그리고 납릉정문의 신어는 수평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대칭의 중앙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 둘은 같다.

그러나 공통점은 여기서 끝나는 것으로 보이며, 도무지 같은 범주의 쌍어문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전체적으로 볼 때, 아요디아의 쌍어는 한 눈에 보아도 보통 물고기가 아닌, '범상한' 물고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머리와 눈과 이빨을 크게 강조하여 압도하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납릉문의 신어는 지극히 평범한 외양을 지닌다. 그야말로 강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물고기를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착한 물고기'라는 인상을 준다. 납릉정문 신어에는 아요디아의 쌍어에서 보는 어떤 신령한 측면이 표현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서 두 마리 물고기가 표현되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 둘 사이의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아요디아의 경우 전체 도안에서 강조의 중심은 당연히 쌍어이며, 그 중앙의 꽃이나 주변의 다른 문양들은 부차적이다. 이에 비하여 남릉정문 부조에서 중심은 파사석탑이며 두 마리 물고기는 오히려 부차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파사석탑과 물고기의 표현방법의 차이에서도 쉽게 짐작된다. 부조에서 파사석탑은 마치 울타리처럼 그 둘레에 고동색 테두리를 둘러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지만, 물고기에는 특별한 강조가 보이지 않는다.

80년대 부조에서는 파사석탑과 그 윗부분의 '수신'에만 고동색 띠 모양의 테두리를 두른 특징이 나타난다. 이 점에서 보면 납릉정문 부조에서 핵심은 아래의 파사석탑과 위의 수신이며, 두 마리 물고기는 단지 그 공간이 바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보조 수단 정도로 해석될 수도 있다.

허황옥루트 재검토

김병모의 허황옥루트에서 키워드는 쌍어문이다. 그는 수로왕릉 납릉정문의 쌍어문의 유래를 추적하는 과정을 통하여 허황옥이 북인도 아요디아에서 왔다고 결론지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아시리아(BC 2700년)에서 시작된 쌍어신앙은 스키타이 문명을 거쳐 인도의 간다라 미술에 영향을 주었으며, 아요디아와 중국 내륙의 보주(普州)를 거쳐서 마침내 고대 가락국에까지 전래되었다.

허황옥의 출자문제와 관련된 국내의 선구적 연구는 이종기의 <가락국 탐사>(1977)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종기는 아요디아에서 본 다수의 쌍어문과 납릉정문 신어상의 일치를 근거로 허황옥의 출자가 아요디아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나아가 김병모는 김수로왕비 유허비(遺墟碑) 비문의 보주태후(普州太后)라는 시호에 착안하여 허황옥의 보주경유설을 진전시켰다. 즉 허황옥의 이동경로가 아요디아-보주-가락국이라는 것이다.

보주경유설의 핵심은 보주 서운향의 허씨 종산에서 발견된 신정기라 할 수 있으며, 이미 말한 것처럼 신정기의 명문 내용에서 “허녀황옥(許女黃玉)”이라는 이름의 발견은 허황옥의 출자문제와 관련하여 획기적인 사건이다. 또한 김병모는 보주경유설의 주요 근거 중의 하나로 서운향 허씨 사당 문설주의 현판에 있는 쌍어문과 신정기와 함께 시문된 쌍어문을 제시하였다.

서운향의 쌍어문은 허씨 종산 중택의 보주허씨조릉(普州許氏祖陵), 마을에 있는 허씨사당 입구 문실주 위에 걸려있던 현판과 실내의 고가구, 그리고 신정기가 음각된 바위에서 발견된다. 허씨사당 현판에 양각된 쌍어문(<그림1-1>)은 매우 역동적인 형태로 묘사되었는데, 특이한 것은 그 사이에 용문(龍門)(<그림1-2>)을 배치한 점이다. 두 마리 물고기 중에서 왼쪽은 아래에서 위로, 오른쪽은 위에서 아래로 선회하는 형상으로 묘사하여 활기찬 분위기를 강조했다. 용문을 오르는 두 마리 잉어를 역동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이것은 자손들의 출세와 입신양명을 기원하는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허씨사당 입구 문실주 위에 걸려있던 현판의 쌍어문



용문(龍門)

허씨 종산 신정기(神井記) 명문과 함께 새겨진 쌍어문을 볼 수 있는데, 두 마리 물고기가 45도 각도로 마주보고 있는 도안이다. 두 마리 물고기 사이에는 신정(神井)으로 추정되는 문양이 새겨져 있다(<그림3>). 물고기의 종류(잉어)와 외양에서 신정기의 쌍어문은 허씨사당 쌍어문과 매우 유사하다.



신정기의 쌍어문과 허씨사당 현판의 쌍어문은 모두 보주 허씨 조상과 관련된다. 즉 신정기는 허씨조상이 기근에도 살아남을 수 있게 한 신정(神井)과 두 마리 물고기 이야기를 전하고 있으며, 허씨사당은 허씨 조상을 모신 곳이다. 뿐만 아니라, 비슷한 외양의 두 마리 물고기가 그 중앙의 어떤 물체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 둘은 공통된다.

그럼에도 이 두 곳의 쌍어문의 모티브는 상당히 다르다. 허씨사당 현판의 두 마리 물고기는 거센 물살을 헤치고 용문을 오르는 잉어를 표현하였으며, 이것은 두 마리 물고기 중앙 위에 배치한 용문(龍門)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즉 허씨사당의 현판에 시문된 쌍어문은 자손들이 등용문으로 올라서 출세와 입신양명하기를 바라는 기원을 담고 있다. 이에 비하여 신정기의 쌍어문은 허씨 조상들을 기근에서 구한 두 마리 물고기와 우물을 묘사하였다. 전자에서 쌍어는 입신양명하는 후손들을 나타내지만, 후자에서 쌍어는 조상들을 구한 신성한 물고기이다.

보주의 쌍어문과 아요디아 쌍어문의 관계

중국에서는 이미 신석기시대 양소문화(仰韶文化)의 채도에 쌍어문이 나타나며, 그 후 은(殷), 주(周)시대에는 사례가 드물고 한(漢) 시대와 와서는 동세(銅洗)의 내면 등에 널리 시문되었다. 그 대부분은 후한 전반(1-2세기)의 것이고 또한 주로 사천성에서 제작되었다.

보주 서운향의 두 곳 쌍어문 중에서 허씨사당 현판에 쌍어문이 시문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쌍어문과 함께 시문된 용문으로 볼 때, 두 마리 물고기는 후한시대의 등용문(登龍門)고사와 관련된다. 신정기와 함께 바위에 시문된 쌍어문 또한 그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신정기의 내용으로 볼 때, 함께 시문된 쌍어가 동한(후한)시대의 전승과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보주 서운향 쌍어문의 기원은 적어도 후한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성된 시기로 볼 때, 아요디아의 쌍어문이 서운향으로 전래되었을 가능성은 없다. 그럼에도 김병모가 서운향 쌍어문의 아요디아 유래를 주장한 것은, 이 두 곳의 쌍어문을 단지 '문화전파론'의 입장에서 이해하려 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문화전파론이 모든 문화를 이해하는 유일한 잣대일 수는 없으며, '문화진화론' 또한 세계의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토대일 수 있다. 아요디아의 쌍어문과 서운향의 쌍어문은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의 '전파'가 아니라, 각기 다른 기원의 '진화'로 봐야 할 것이다.

이 점은 이 두 곳 쌍어문의 양식과 모티브를 비교할 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아요디아의 쌍어는 대개 45도 각도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대칭의 중앙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 둘은 같다. 그러나 공통점은 여기서 끝나는 것으로 보이며, 아요디아와 서운향의 쌍어문은 도무지 같은 범주의 쌍어문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아요디아의 쌍어는 그 중앙 위에 배치된 왕관이나 꽃을 보호하는 의미를 지니지만, 신정기의 쌍어는 그 중앙 아래에 놓인 우물을 보호하는 보호자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신정기의 쌍어는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니는 신성한 물고기이다. 아요디아의 쌍어가 왕관이나 꽃을 보호하는 물고기라면, 신정기의 쌍어는 신성한 우물(神井)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이다.

즉 아요디아와 신정기의 쌍어문에서는 공히 두 마리 물고기 사이에 어떤 대상을 배치하였지만, 그 대상과 쌍어의 관계는 서로 정반대이다. 이 점은 쌍어 사이에 배치된 대상의 위치에서도 드러난다. 즉 아요디아의 쌍어문에서는 마주보는 두 마리 물고기 중앙 위쪽에 왕관이나 꽃을 배치하였지만, 신정기의 쌍어문에서는 두 마리 물고기보다 아래쪽에 우물을 배치하였다.

허씨사당 현판의 쌍어문은 디자인과 모티브에서 아요디아의 쌍어문과 완전히 다르다. 우선 아요디아 쌍어문의 두 마리 물고기는 대개 45도 각도로 대칭을 이루면서 그 중앙 위쪽의 왕관이나 꽃을 바라보는 형상이지만, 허씨사당 현판의 두 마리 물고기는 서로 대칭을 이루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미상반 형태를 이루어서 매우 역동적으로 보인다. 이것은 허씨사당 현판의 쌍어가 거센 물살을 헤치고 등용문을 오르고 있는 두 마리 물고기라는 점에서 보면 오히려 당연하다. 또한 아요디아의 쌍어는 보호의 모티브를 지니는 반면에 허씨사당 현판의 쌍어는 후손들의 입신양명이라는 모티브를 지닌다.

이와 같이 서운향의 쌍어문은 그 기원이나 양식 또는 모티브로 볼 때, 아요디아의 쌍어문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이 두 곳의 쌍어문은 각기 다른 문화적 토양에서 나타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특히 허씨사당 현판의 쌍어문은 지극히 중국적이다. 이것은 여기서 두 마리 물고기를 수미상반 형태로 배치한 점에서 두드러진다. 두 마리 물고기는 전체적으로 순환하는 음양(陰陽)을 닮았으며, 후대의 회어문(回魚紋)을 연상하게 한다.

고대 타밀왕국과 가락국의 문화적 접촉 가능성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김병모의 허황옥루트에서 쌍어문은 적어도 아요디아와 보주 구간에 대해서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왜냐하면 아요디아의 쌍어문은 18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며, 그 양식이나 모티브가 서운향의 쌍어문과 다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보주경유설은 기원전 2세기경 쌍어신앙을 가지고 있던 허황옥의 선조들이 중국의 보주로 이주한 것으로 보지만, 기원전 2세기 아요디아에 쌍어신앙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아요디아를 허황옥루트의 인도 기점으로 보는 김병모의 보주경유설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가야불교의 유래지도 북인도의 아요디아에 국한시킬 이유가 없다.

사실 고대의 아쌘은 아요디아지역과 직접 소통한 흔적이 드물 뿐만 아니라, 이 두 지역의 문화적인 유사성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고대의 아쌘은 해로를 통하여 타밀과 상업적 문화적으로 활발하게 소통했다. 먼저 고대의 타밀과 차마고도의 관계를 살펴본 후에, 타밀에서 차마고도를 통하여 불교가 보주를 경유하여 가락국에 전래되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보주의 지리적인 여건으로 볼 때, 허황옥의 조상들이 인도에서 보주로 이주한 경로는 차마고도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 경우 인도의 기점은 벵갈 델타(Bengal-delta)의 아쌘이며,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타밀문화가 강했다. 이미 2천여 년 전부터 사천과 인도 사이에 무역이 이루어졌다. 차마고도는 중국과 인도의 문화교류에 매우 중대한 역할을 했다.

기원전 2세기 이후 수세기 동안 방글라데시와 인도의 시킴(Sikkim)지역은 타밀왕국의 하나였던 촐라왕조의 영향권에 있었다. 고대 방글라데시의 언어 또한 드라비다어 계통의 언어였다. 다시 말하여, 차마고도가 시작되는 벵갈델타지역은 아요디아보다는 오히려 타밀문화권에 있었다는 점이다.

아쌘의 하야그리바 마드하브(Hayagriva Madhav)사원은 차마고도의 인도 기점인 아쌘과 타밀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

6세기 팔라(Pala)왕조 때 세워진 것으로 전해지는 이 사원은 아쌘의 주도인 구와하띠(Guwahati) 인근의 하조(Hajo)에 있으며, 하조는 차마고도의 기점에 해당한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하야그리바사원의 주신(主神)인 하야그리바는 본래 비(非)아리안계통의 신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전통적으로 타밀지역에서 널리 숭배되어온 신이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캄루쁘루트를 통하여 차마고도에 오른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밀사람들이었다는 방증이다. 하야그리바 마드하브사원은 지금도 아쌈의 캄루쁘(아쌈)지역을 대표하는 사원이며, 힌두교뿐만 아니라 또한 불교와 관련된 여러 전승들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이 사원이 붓다의 열반지에 조성되었다는 민간전승이 있으며, 심지어 사원 지성소에 안치된 하야그리바 신상이 본래 불상(佛像)이었다는 설도 있다.

이 사원은 인도 동해안 오릿사(Orissa)의 뿌리(Puri)에 있는 자가나트(Jagannath)사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이 두 사원의 주신들, 즉 하야그리바와 자가나트의 유사성이 지적된다. 또한 아쌘의 하야그리바사원과 오릿사 뿌리(Puri)의 꼬나락(Konarak)사원 외벽에 부조된 무르당감(murdangam)은 북인도 힌두스타니(Hindustani)음악과는 무관한, 남인도 까르나틱(Karnatic)음악의 주요 악기 중 하나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인도 동해안 꼬로만델해협을 통하여 타밀의 종교와 문화가 아쌘의 감루쁘로 전해졌다는 방증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아쌘의 하야그리바사원 전승에서도 보는 것처럼, 하야그리바는 힌두교뿐만 아니라 불교와도 깊은 관련을 지니며, 힌두교의 영향이 강한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서 하야그리바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묘사된다. 미얀마 퓨(Pyu)왕국[驩國]의 불교 사원에서도 하야그리바신상이 발견된다. 기원전 2세기 경 중국 운남에서 미얀마의 이라와디(Irrawaddy)강 유역으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진 퓨종족의 주요 도시들 중 이라와디강 상류의 할린(Halin) 등은 차마고도에 인접해 있다. 퓨왕국의 불교전통에서 하야그리바신상이 발견된다는 것은 남인도 타밀의 종교적인 요소가 차마고도를 통하여 미얀마로 유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야그리바신앙 외에도 타밀과 아쌈 사이에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유사성이 지적된다. 첫째, 이 두 지역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음식문화를 지닌다. 인도 서북부의 힌두쿠시산맥을 넘어온 아리안(Aryan)들이 '밀'(wheat) 중심의 음식문화를 유지한 반면에, 아쌈과 타밀의 음식문화는 '쌀'(rice) 중심이다. 쌀가루 반죽을 구워 만드는 아쌈의 '띠-삐타'(til-pitha)는 타밀의 도사(dosa)와 유사하다. 또한 이 두 지역에서는 고대로부터 누에를 치는 전통이 있으며, 타밀의 칸지바람(Kanjivaram, Kanchipuram)실크와 아쌈의 무가(mooga)실크는 인도에서도 특히 유명하다.

더욱이 북인도의 주요 도시들과는 달리 아쌈의 새해 축일(bihu/bishu)은 타밀의 새해 축일(Vishu)와 같은 날이다. 아쌈의 추수감사축제인 브호갈리(bhogali)는 같은 날에 같은 의미로 기념되는 타밀의 풍갈(pongal)축제와 매우 유사하다. 또한 타밀과 사천 사이에는 공통적으로 물고기 송배가 있었다. 허씨 종산 신정기에는 물고기 두 마리가 허씨를 기근에서 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한편 타밀지역에는 물고기가 왕과 세상을 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맛시아뿌라나>에 따르면, 고대 타밀왕국의 사띠야브라따(Satyavrata, 즉 Manu)라는 왕이 강에서 손을 씻고 있었는데, 물고기 한 마리가 그의 손 안으로 들어와서 생명을 구해달라고 간청했다. 이에 사띠야브라따왕은 물고기를 항아리 속에서 살게 했다. 물고기가 점차 커짐에 따라서 왕은 물고기를 연못으로 옮겼으며, 마침내 강에 풀어주었다.

그러나 마침내 강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물고기의 몸집이 거대해졌다. 그때 물고기는 비슈누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드러냈으며, 7일 안에 큰 홍수가 나서 땅위의 모든 생명이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에 사띠야브라따왕은 7성자들과 함께 모든 약초들과, 곡물의 씨앗들, 바수키(Vasuki)와 다른 동물들을 실을 수 있는 배를 짓도록 했다. 이로써 왕과 세상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 물고기는 끊임없는 갱신의 상징으로 간주되며, 벵갈, 오릿사, 아쌈, 꾀간(Konkan) 등, 인도 동해안 지역의 결혼식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벵갈지역에는 결혼의례의 한 과정으로 신랑과 신부 측에서 각각 성장(盛裝)된 물고기를 보내는 전통이 있다(그림 19>). 방글라데시에서는 결혼식 날 아침에 신부의 집으로 한 쌍의 물고기를 보내는 전통이 있다. 방글라데시에서 물고기는 풍요, 영원, 행운, 지혜 등을 상징한다.

이와 같이 타밀과 아쌈 사이에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교류 흔적이 있으며, 또한 미얀마를 통하여 아쌈으로 이어지는 차마고도의 중국 기점이 사천의 성도(成都)라는 사실도 분명하다. 따라서 허황옥의 출자가 타밀왕국이었다고 가정할 때, 그 조상들이 뱃길 또는 육로로 코로만델해협을 따라 북상하여 아쌈에 닿은 후, 차마고도를 따라 미얀마를 통하여 사천의 보주로 이주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사천의 보주에는 타밀왕국과의 문화교류를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타밀지역에서 아쌈에 전해진 하야그리바신앙 또한 미얀마의 차마고도 지역에서 더 이상 운남 또는 사천으로 직접 이어지지 않는다. 사천의 북쪽 접경의 티베트지역에서 하야그리바의 변형이 발견되지만, 그것은 티베트를 통하여 전래된 것으로 보인다. 타밀에서 아쌈으로 전해진 하야그리바는 아쌈에서 네팔루트를 통하여 티베트로 전해졌으며, 티베트에서 하야그리바는 '마두관음'(馬頭觀音)으로 변용되어 중국 및 일본으로 전해졌다.

가락국과 고대 남인도의 물고기 숭배

따라서 아유타국과 쌍어문에 초점을 맞추는 기존의 연구들과 관점을 달리 해서, 북인도의 아요디야가 아닌 남인도지역과 가락국 간에 문화적인 교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허황옥의 출자도 북인도의 아요디야가 아니라, 남인도 타밀지역과 관련하여 연구될 필요가 있다.

고대 한국과 남인도의 문화적인 상호접촉을 구려해볼 필요가 있는 이유

1) 따밀어와 한국어의 유사성/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로 볼 때, 고대 한국과 인도의 문화적 접촉가능성을 보여주는 가장 구체적인 예는 따밀어와 한국어의 유사성이다. 이 문제는 이미 국내외의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규명되었다.

2) 해안을 통한 고대 인도와 한국의 문화적인 접촉가능성은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제시되었다(간수, 정수일) 1989, 1-28; 한지연 2016, 129-149; 황순일 2017, 29-43). 이런 점에서 남인도의 따밀지역과 가락국의 문화적인 관련에 주목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본인은 특히 따밀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물고기송배 전통과 고대 가락국지역 또는 낙동강 이남지역의 산(山) 이름과 사찰 이름 등에 물고기 '어(魚)' 자가 많은 점에 주목하였다. 넓은 의미에서 수로왕릉의 쌍어문도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닌다기보다는, 이 지역에 전래되는 물고기송배의 한 측면이 나타난 것으로 본다. 사실 고대 인도의 여러 왕국들 중에서 쌍어문을 기장으로 사용한 나라는 북인도의 아요디아가 아니라 따밀왕국들 중의 하나였던 판디아(Pandya)왕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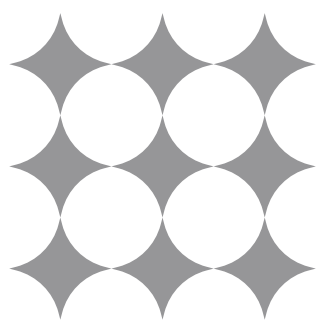
낙동강 이남, 고대 가락국지역의 물고기숭배와 드라비다(Dravida)문화

낙동강 이남지역 특히 옛 가락국지역에는 물고기 '어(魚)' 자가 들어간 산이 여럿 있다. 김해의 신어산(神魚山)과 밀양의 만어산(萬魚山), 양산의 어곡산(魚谷山) 등이 대표적인 예다. 김해의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신어산은 옛 금관가야의 지킴이산이었다. 밀양의 만어산은 허황옥전승과 관련이 있는 만어사(萬魚寺)의 주산(主山)이며, 어곡산은 양산시 어곡동에 있다. 경주의 어래산(魚來山)이나 문경의 어룡산(魚龍山)도 물고기 '어' 자를 지닌 산이다. 산 이름에는 물고기 '어' 자가 없지만, 부산의 지킴이산 금정산(金井山)도 물고기와 관련이 있다. 범어사의 창건유래를 전하는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 따르면, 금정산은 금정(金井)에 범천의 물고기(梵魚)가 노닐던 산이다(최완수 1997, 374).

가락국의 왕이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는 만어사는 물고기와 관련된 창건설화를 지니며, 이 절이 위치한 자성산(慈成山)이라는 이름에도 인도문화가 반영된 흔적이 있다. 만어사는 그 밑에 있는 쇧소리가 나는 돌너덜로 유명하다. 전설에 따르면, 이 돌너덜의 수많은 종석(鐘石)들은 물고기가 변한 것이라고 한다. <삼국유사>에는 만어사가 있는 산 이름, 즉 자성산이 물고기를 의미하는 범어와 관련된다는 기록이 있다.

제언

- 1) 향후 연구방향과 관련하여/ 고대 인도와 가락국/가야불교의 문화적 교류 연구에서 허황옥-파사석탑-쌍어문과의 의미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 2) 허황옥을 키워드로 한다면, 중국 사천성 보주의 신정기 기록(허녀황옥)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인도로부터 가야로 해로를 통한 직접 교류의 가능성이 사라진다.
- 3) 고대 인도와 한국/가락국의 직접적인 문화교류를 상정한다면, 고대 따밀왕국과 가락국 사이의 해로를 통한 교류 가능성 탐색할 수 있다.



김해-인도 대표 인물 허왕후! 콘텐츠로 풀어내다.

김태영 경남연구원 미래전략본부장

김해-인도 대표인물 허왕후! 콘텐츠로 풀어내다

경남연구원 김태영 미래전략본부장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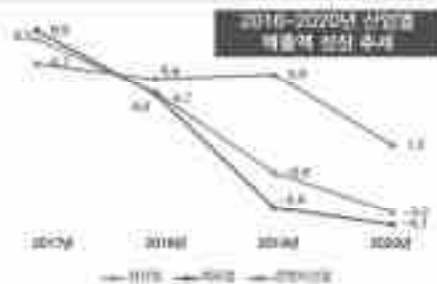
- Ⅰ 콘텐츠산업의 중요성
- Ⅱ 사례분석
- Ⅲ 허왕후의 금관가야 도래 경로
- Ⅳ 허왕후 활용방안

I 콘텐츠산업의 중요성

II 콘텐츠산업의 중요성

콘텐츠산업의 중요성

콘텐츠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



✓ 세계적 경제불황에 따른 전산업, 제조업의 마이너스 성장세에도 콘텐츠산업은 성장세 유지

✓ 콘텐츠산업 수출액 100달러 증가 시, 소비자는 248달러 증가

자료: 국제통계기구나(Inter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 국제무역데이터베이스(ITS) 데이터,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차산업조사, 2021. 2차산업조사로 전제로 제작

긍정적 국가 & 지역 이미지 및 브랜드 형성에 기여



✓ 한국에 대한 전반적 국가이미지 긍정 평가 88.9% (대외경제협력포럼, 2021. 국가이미지 조사)

✓ (미국인) 국가 이미지 열람순위 1위 현대문화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2021. 2차산업조사
 URL: www.kcci.or.kr, 2021. 2차산업조사

뛰어난 전후방 효과



◀ 제조업, 문화·예술, 관광 등으로 연관 범위 확장을 통한 신산업 창출

[해리포터 시리즈]

- '97~'16년 총 8개 시리즈 흥간 → 70개 언어로 번역되어 4억 5,000만부 판매, 영화로 제작되어 B조 6,240억원의 수익 창출
- 해리포터의 배경이 된 런던 킹스크로스역, 옥스퍼드 크라이스트 처치, 에번버러성 등은 세계적 관광명소로 성장
- 해리포터 스튜디오, 해리포터 기념품 등 문화·관광자원화 추진

[BTS 다이내마이트]

- 빌보드 핫 100차트 1위를 차지한 것의 경제적 파급효과 1조 7천억원 추산
 - 직접적 매출 2,457억원, 화장품, 식품, 의류 등 연관 소비재 수출 증가 규모 3,717억원
- 생산유발효과 1조 2,324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801억원, 고용유발효과 7,928명으로 추산



◀ 타산업 대비 고용유발효과 우수

[십여원당 고용유발계수(2019년 기준)]

제조업			콘텐츠산업	
업종	제조업 대비	업종	방송	
1.77명	0.24명	4.72명	7.70명	8.29명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연구개발팀, 콘텐츠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고용유발효과 연구(2019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10월 23일 기준

미래 핵심 성장동력

- ◀ OTT(Over The Top), 메타버스 등 뉴 플랫폼의 급성장
 -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OTT 플랫폼]

- 시간, 장소, 장비에 관계 없이 원하는 콘텐츠의 소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코로나 19 이후 대면활동 제한으로 급성장한 플랫폼
- 구독경제, OTT 배어 된 새로운 문화 탄생
 - 국내 구독경제 시장 '16년 25조 9,000억원
 - '20년 40조 1,000억원으로 54.8% 성장



[메타버스 플랫폼]

- 현실과 디지털의 혼합세계로 현실에서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던 다양한 활동들이 가상세계에서 새롭게 구현
 - 미국 조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당시 아바타를 통해 선거 유세 활동 전개
 - 가상 부동산 거래 사이트인 어스(EARTH)2는 지구를 복제하여 가상세계에서 부동산 판매+모든 거래 절차를 가상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서비스 구축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연구개발팀, 뉴 플랫폼의 성장 동력 연구(2020년 10월), 한국콘텐츠진흥원, 2020년 10월 23일 기준



사례분석

이 남원의 성춘향과 이몽룡

II. 사례분석

조선시대 신분 차이를 극복한 러브스토리

① 판소리 「춘향가」와 고전소설 「춘향전」을 모티브로 문화·관광 콘텐츠 창출

- 남원시는 인물의 실존 여부, 사실에 관계 없이 성춘향-이몽룡 스토리를 활용한 문화·관광자원이 추진

구분	내용
관광 시설	● 춘향테마파크 조성(04), 강항루입 전통문화체험지구 조성(22), 옛다솜 이야기관 조성사업(22~23) 등
콘텐츠	● 춘향만리(18), 월너춘향수질가(21), 가인춘향(22) 등 남원시립국악단 연계 주 야간 상설공연 개최



② 성춘향과 이몽룡을 도시 브랜드 구축에 활용

- 춘향남원 사랑의 1번지(브랜드 슬로건), 춘향애인(농산물브랜드) 등 도시 브랜드 구축에 활용



③ 현유, 국악 테마의 연계 콘텐츠 육성

- 남원예촌, 국악의 성지, 할미우 소리체험관 등 한류, 국악 테마의 연계 콘텐츠 육성을 통해 지역의 특화된 정체성 구축



자료: 남원시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의 자료에 의거하여 제작함

인도의 영원한 러브스토리

①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는 장소성 확보

- 스토리텔링+전파를 통해 공간의 장소성 확보 → 타지마할은 현재 인도의 연인들이 사랑을 맹세하는 장소

② 스토리 투어 프로그램 운영

- 아그라는 고대 무굴 제국의 수도로 제국의 전성기 당시의 건축, 미술 유적 등이 집적 → 우타프라데시주 관광부 차원에서 아그라테이투어 (타지마할, 아그라성, 타테푸르 시크리 등), 타지마할 안팎야간 투어 등 운영



사 자안은 인도 무굴 제국의 제5대 황제로 AD.1612년 5월 10일에 왕자의 신분으로 톨타즈 마할과 결혼했으나, AD.1631년 톨타즈 마할이 13번째 아이를 출산한 후 병력으로 사망했다. 사 자안은 슬픔에 잠겨 1년간 절거하였으며, 2년간 먹이 먹지 않고 자식, 장신구, 등아 장상 등을 전파 하지 않았을 정도로 톨타즈 마할을 그리워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 자안은 아내 톨타즈 마할이 무덤에는 남기지 말라할 수 있도록 무굴 제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 숙련되었던 건축 기술자와 2만 명 이상의 노동자를 동원하여 22년에 걸친 공사를 추진했고, 1648년 타지마할을 완공했다. 사 자안은 타지마할 건설을 위해 국고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고, 이를 이유로 AD.1657년 제 5번째 아들 아우렝제브에게 왕위를 박탈당했다. 이후 사 자안은 죄수가 되어 아그라 요새의 필라 할에서 아내 톨타즈 마할과 모성 타지마할을 바라보며 여생을 보냈다가 AD.1666년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출처: 타지마할 홈페이지(<http://www.tajmahal.gov.in/>)



허왕후의 금관가야 도래 경로

01 허황후(許皇后)는?

II. 허황후의 금관가야 도래 경로

» 허황후의 개요

- 허황후(許皇后), 허황옥(許黃玉)이라고도 불리는 금관가야 사조 김수로왕의 비
- 시호는 보주태후(西州太后)이며, 김해김씨(金海金氏) 김해씨(金海許氏)의 시조모
- 서기 48년 음력 7월 27일 배를 타고 금관가야로 건너와 수로왕의 왕비가 되어 태자 기동공(奇童公) 등 아들 10명을 낳고, 186년 157세의 나이로 사망



» 허황후의 출신

- 인도 북부 아요디아, 인도 남부 아요디아 구말, 일본 후쿠, 중국 남주, 태국 아요디아 등 학자별로 다양한 견해 제시

- ✓ (김재문리재판) 다큐멘터리 '과학으로 본 허황옥 3일'에서 허황후가 인도 북부 아요디아에서 암선도로 건너온 것으로 분석
- ✓ (김해시 가락촌친화) 수로왕릉의 방어진 대묘분의 분양과 인도 아요디아 힌두교 사원의 무늬 간 유사성→허황후가 인도 북부 아요디아에서 왔음을 나타내는 증거



01 김수로왕과 허황후의 첫 만남

II. 허황후의 금관가야 도래 경로

- 허황후의 부친과 모친의 꿈에 환천(환천(환천)이 나타나 허황후를 김수로왕의 배필로 삼게 하라 했고, 이들은 허황후에게 금관가야로 갈 것을 명령 → 허황후는 김수로왕을 만나기 위해 바다를 건너 붉은 색의 불꽃 단 배를 타고 금관가야에 도착하여 김수로왕에게 자신을 아유타국(阿逸陀國)의 공주 허황옥(許黃玉)이라 소개

*삼국유사, 가락국기

일찍이 바다의 서남쪽에서 김수로의 뜻을 한 배가 붉은 기운 배양고 목축을 방해 호고 있었다. 유원간 들은 번개 빛산도 위에 서 불꽃을 응하니 곧 사람들이 다투어 목척도 내려 피어왔다. 신귀간을 아섯을 보고 배럴도 달려해서 그것을 바려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부쳐 거버하여 이내 구간(古干) 등을 찾아 보재며 두관(頭官)으로 만든 아를 싸고잡고 계수(計數)로 만든 노를 띄어 그 말을 맞이하게 하였다. 그 밤에 시종한 일(事)이 두 사람의 비류는 상보(上輔) 조양(趙陽)이었고, 그들의 아내 두 사람의 이름은 도경(都京)·도경(都京)이라고 했으며, 노비까지 합해서 고(高) 열었었다. 가지고 온 김수동자(金水童女)와 피살(皮殺) 금은 수옥(金銀)과 구슬도 편 장삼구슬은 여부 거동할 수 없을 만큼 많았다. 부부가 물결 떨어 있는 곳에 가까이 이르러 왔으니 그들 앞에서 황제(皇帝)도 나타나

"저는 아유타국(阿逸陀國)의 공주인 붉은 비(赤)이고 이름은 황옥(黃玉)이다"라는 16살이었다. 문득에 일어나서 금관(金冠)을 받들어 황후에게서 지어주었다. "우리가 여섯달 후에 함께 환천(還天)을 피할데, 환천은 가락국의 왕 수로(水羅)라는 것은 하늘이 내리 보내서 왕위에 오르게 하였으니 곧 신령스런고 성스러운 것이 이 자였어라. 또 나라를 세우느라 힘써서 있어 이리 배 말을 행하게 하였으니, 귀들은 공수를 보아서 그 배말을 알게 하여 주고, 말을 내리자, 하늘로 올라갔다. 말을 행하게 하였으니, 왕은 내리 보내서 그대도 남아 있으니, 너는 이 자리에서 곧 무릇을 보내라고 그곳을 향해 바다의 배는 차렸습디다, 저를 배를 타고 멀리 동국(東國)을 갔고, 하늘로 기어 번(轉)을 하여 이리 이르러온 도중으로 용(龍)을 거키이하게 하였습디다."

출처: 삼국유사(三國遺事) 권제1(卷一) 신라본기(新羅本紀) 11

» 『삼국유사』 기록국기에 기록된 허왕후의 도래 당시 지리적 정보



양산(陽山)은 기라국 좌내의 남쪽에 있는 섬이다.
 승림(昇林)은 기라국 좌소의 땅이다.
 기라국 궁궐 아래로부터 서남쪽으로 60보쯤 되는 곳의 한 주위에 인민(人民)을 채서 임시 궁전을 설치하고 거다였다.
 바다의 서남쪽에서 붉은 의복을 입은 자가 붉은 기를 태우고 배를 타고 오고 있었다.
 붉은 기를 태우고 들어온 배안자를 기슭변(基岫邊)이라 한다.
 허왕후는 한 함의 병조진(兵曹進) 병사(兵士)에 배를 타고 함께 올랐다.
 작은 파 배를 타고 함께 대인(大人)의 마음을 구우르(求)고 배(拜)이라 한다.
 높은 언덕에서 귀면서 입고 밧짚 대담(大談)하기를 벗어 배(拜)으로 삼아 신신명(神神命)에게 바쳤다.
 배안(拜安)을 벗은 신사(神司)를 능현(陵峴)이라 한다.

출처: 『삼국유사』(www.samguyusa.net), 『삼국유사』(www.samguyusa.net) 2019년 12월 29일 11:11:21, 『삼국유사』(www.samguyusa.net) 2019년 12월 29일 11:11:21

» 허왕후의 구체적 도래경로 추정



허왕후는 기슭변으로 왔다가 양산도에서 잠숙했고, 서북쪽의 양주지에 배를 정박했다가 구급(九日)이 멀어 파파 내리(내리)였다고 한다. 이후 수리왕(수리)이 안(안)에서 기다리겠다는 소식을 듣고 양주지에서 음력 7월 27일 밤에서 하루를 보냈다.
 음력 7월 28일 병조(병조)나우(나우) 상(상)파(파)에 배를 정박하고, 능현에 유이(유이) 밧(밧) 짚(짚) 대담(대담) 후(후) 수리(수리)왕(왕)을 만나 만전(만전)에서 음력 7월 28일~29일 이틀을 지내고 오전에 승림(승림)하여 분림(분림)으로 들어갔다.

출처: 『삼국유사』(www.samguyusa.net) 2019년 12월 29일 11:11:21



IV

허왕후 도래길 활용방안

01 매력 있는 스토리자원의 육성

IV. 허왕후 도래길 활용방안

기존 콘텐츠의 선별 및 메인 테마의 개발

- 기존 콘텐츠는 인지도, 흥행도 측면에서 미흡한 편이며, 김수로왕과 허왕후를 상징하는 메인 테마 부재

구분	내용
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뮤지컬: 사랑의 제국(2010), 미래를 러브 I (2015), 미래를 러브 II (2017년) 오페라: 허왕후(2021) / 무용: 가야왕후부(2016)
다큐멘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애니메이션: 한국실화- 배를 타고 나타난 허왕후 KBS스페셜- 가야역사다큐멘터리- 김수로왕비, 수로왕비 허왕후 KONN 특집 다큐멘터리- 과원으로 본 허왕후 3일
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김해박물관 캠프 2018년부터 가야사와 국립김해박물관 홍보를 위해 가야, 국립김해박물관을 주제로 공모전 개최 수로왕이 낚던 진짜 유산(2018), 신화가 이어지는 곳(2019)



재평가를 통해 적합성과 대중성을
보유한 콘텐츠 선별 및 집중 육성

김수로왕과 허왕후의 러브스토리를
상징하는 메인 테마 발굴
→ 신규 콘텐츠 개발+보편도화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다양한 계층이 향유 할 수 있도록
개선

스토리 기반의 키워드 도출 및 사회문화적·교육적 측면에서 활용

개방성	● 고대의 국제교류
도전정신	● 김수로왕을 만나기 위해 인도에서 바다를 건너는 험난한 여정을 통해 금권가야 도래 ● 이(美)문화권 가진 낯선 곳에 정착하여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
리더십	● 『삼국유사』가라국기에는 허왕후의 죽음 후 '은 나라 사람들은 땅이 꺼진 듯이 슬퍼하고 구지봉(龜頭峰) 동쪽 언덕에 장사하였다.'라고 기록 ● 백성들의 존경과 신앙을 받는 훌륭한 리더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음을 의미
일성일도	● 김해허씨(金海許氏) 시조묘로 여성의 성씨를 승계한 양성평등의 사례

사회문화적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캠페인 등에 활용

이들 청소년 등 대상 올바른 가치관 함양을 위한 교양 교육 프로그램 운영

02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관광지원화 추진

스토리를 통한 관광 연계성 강화

- 김해시는 가야유적이 집중된 현도심을 중심으로 가야역사문화 관광형비서임(2단계), 인도기념공원, 가야오픈스마트테마파크 등 관광개발 사업 추진
- 그러나 기존 관광자원 및 신규 관광자원 간 물리적·소프트웨어적 연계성 부족



허왕후 도래길을 기반으로 김수로왕과 허왕후의 일대기를 스토리로 구성하고 공간에 배치
* 김수로왕과 허왕후의 삶과 사랑, 김수로왕의 국제관, 허왕후의 인도에 대한 항수, 일곱왕자, 종교 등

스토리 연계 시설물 설치+공간을 스토리로 연계 공간별 전시, 교육, 체험 이벤트 등 기능 부여
— 가야왕궁터로 추정되는 봉황동 유적에 김수로왕과 허왕후의 동상, 러브스토리 안내판 등 설치



도래길 관련 유적 조사·정비 및 ICT 콘텐츠 도입

- 도래길 관광자원화를 위해서는 주요 유적에 대한 기본적 정비사업 추진 필요

유적명	내용
기룡면	• 붉은기를 덮고 있는 배가 나타난 바닷가
암산도	• 유선간이 허왕후를 기다리던 장소
유주지	• 현재 유주비락이 있는 곳으로 허왕후가 탄 배가 최초로 침박하여 선원불만 내었고, 허왕후가 허물을 배워서 보낸 곳
송림	• 선유간이 허왕후를 기다리던 장소
별포진	• 허왕후가 송림에 오르기 전 배를 정박하기 위해 뒷줄을 내린 곳
주포촌	• 허왕후가 배를 타고 불에 내린 마을
능현	• 허왕후가 비단바지를 벗어 산신령께 제물을 올린 곳
면전	• 김수로왕이 허왕후를 맞이하기 위해 동해 서남쪽 80보쯤 아래 현은 임시 장막공간
총포	• 유숙할만한 곳이 있고 외해(外海)의 행정관청 및 숙사(宿舍)의 기능을 갖추었던 지방의 관청으로 추정

※ 허왕후 도래길은 동해(東海) 지역을 방문 할 경우 차에 탄 상태에서

대칭지 조사 및 스토리 안내판 설치

면전 등 핵심 스토리자원 연계 테마공원 조성

증강현실(AR) 콘텐츠 개발
→ 장소별 스토리, 관광코스 등 정보 제공

(단기) 기존 가야 관련 축제 연계 및 (장기) 국제 엑스포 계획

- 김해시는 가야 역사·문화를 테마로 가야문화축제, 김수로왕·허왕후의 러브스토리를 테마로 허왕후 신행길 축제 개최

허왕후 도래길을 시브 축제장으로 활용

허왕후 도래 체험 및 피레아드,
허왕후 도래길로 탐방 프로그램 등

(가정)허왕후신행길 한-인도 국제 엑스포 양국 순회 개최

성직오메라 '허왕후' 주체공연, 신행길 피레아드, 인문학 강좌(허왕후의 도전정신, 리더십, 양성평등 등), 국제 학술대회, 가야 상할 콘서트 체험, 경남 가야문화관 등



(사)경남경주시 실크로드 코리아-이란 문화축제

- 17년 미얀마 미스파힘에서 실크로드를 통한 신라와 페르시아의 교역, 페르시아 왕자 아비드와 신라공주 무리나미의 국제같은 스토리를 바탕으로 실크로드 코리아-이란 문화축제 개최
- 개최기간: 2017년 3월 11-14일
- 주요 프로그램: 신라고취미 행렬, 주제공연 무리나미, 특별전 '묘, 한국의 '미과 장', 힐링 마장권 요리전, 신라복 및 한복 체험, 코리아-이란 교류전, 공동공연 체험 등

감사합니다.



주최 / 주관   문화도시김해  INSTITUTE OF INDIAN STUDIES
한국외국어대학교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남도  김해  한국연구재단